



대만에 대한 SK, 실점을 높여 아시아리조트 탈락

WBC서도 조심해야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한국, 대만과 두번 대결 가능성

동틀 대비 실점 최소화 필요

아시아 야구 왕중왕을 가리는 2008 아시아리조트에서 SK 와이번스가 복병 대만...

SK는 지난 15일 도쿄돔에서 열린 2008 아시아리조트 3차전 통이와 경기에서 투수를 8명이나 총동원했지만 3점 홈런 2개 등 홈런을 4명이나 헌납하는 졸전 끝에 4-10으로 패해 시리즈 전적 2승1패를 기록했다.

SK가 2승1패를 거두고도 동틀인 세이부와 통이에 밀린 것은 최소실점을 따지는 대회 규정 때문이다. 동틀일 경우 상대전적을 따지고, 그마저 같으면 실점률이 작은 팀이 결승에 올라가는데 세이부가 0.292(24이닝 7실점), 통이가 0.385(26이닝 10실점), SK가 0.542(24이닝 13실점) 순이었다.

WBC 규정도 비슷하다. 2006년 1차 대회에서 미국이 4강에 오르지 못한 것도 바로 실점률 때문이었다.

8강까지 조별 풀리그를 벌이고 동틀 팀이 있으면 승자승, 최소 실점, 이닝당 실점률을 차례로 따지는 게 당시 규정. 8강 리그 A조에서 미국과 일본은 1승2패 동률을 이뤘고, 실점(5점)도 같았지만 17과 3분의 2이닝을 수비한 일본의 실점률이 0.283에 그친 반면, 17이닝을 치른 미국은 0.294였다. 당시 일본은 예선과 본선에서 한국에 두차례 패하는 등 8강까지 3승3패의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도 미국을 실점률로 제치고 4강에 오르는 행...

운을 안은 끝에 결국 첫 우승 감격까지 누렸다. 질 때 지더라도 실점을 적게 하는 일본 야구가 WBC나 아시아리조트에서 잇단 행운을 누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SK의 패배가 WBC를 앞두고 국가대표팀에 더욱 경중을 올리는 것은 예선 상대가 아시아리조트와 마찬가지로 타선 폭발력이 있는 대만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WBC 조직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진 일정에서 따르면 한국은 내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WBC 지역예선 A조에서 대만과 첫 경기를 치른다. 장소는 도쿄돔이다. 네 팀이 풀리그로 순위를 정한 지난 대회와 달리 이번에는 패자부활전을 도입한 '더블 엘리미네이션' 규칙이 적용된다.

첫 경기 승자는 승자끼리, 패자는 패자끼리 맞붙는다. 여기서 2연승을 한 팀은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하고 2연패를 한 팀은 탈락하지만 1승1패를 한 팀끼리 다시 격돌해 본선 진출팀을 가린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역예선에서만 대만과 두 번 만날 가능성이 있다. 1차전 대만에 이겨도 2차전은 중국에 승리가 확실시되는 일본과 맞붙기 때문.

일본에 지면 3차전은 예선 2차전에서 중국을 이길 가능성이 큰 대만과 치러야 한다. 대만을 두 번 이겨야 조 1,2위를 가리는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셈이다. WBC 규정과 대진 일정을 고려할 때 한국은 지금부터 실점을 줄일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수별 투구 수가 제한돼있는 WBC 예선 컨디션이 좋은 특정 투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바뀐 말하면 컨디션이 나쁜 한 투수가 대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리세이부, 대만 통이 꺾고 우승

리프로야구 첫 여자선수 탄생



일본 대표 세이부 라이온스가 아시아 4개국 프로야구 챔피언인 아시아시리즈에서 우승했다.

세이부는 16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대만 대표 통이 라이온스와 결승전에서 0-0이던 9회말 2사 1루에서 나온 사토 도모야키의 좌중간 2루타 때 상대 야수진의 중계 플레이가 느슨한 틈을 타 1루주자 이사이 요시히토가 홈을 밟아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2005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에서 롯데 마린스가 우승한 이후 니혼햄(2006년)-주니치(2007년) 등 일본팀이 4년 연속 우승컵을 안았다.



일본프로야구에 첫 여자 선수가 탄생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6일 인터넷판에서 내년 4월 출범하는 프로야구 간사이 독립리그 신인 드래프트 회의결과 고베 나인 크루즈가 요시다 에리(16·사진)를 7순위(전체 27번째)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1950~1952년 일본 여자프로야구리그가 있었지만 요시다가 고베 나인 크루즈에 입단하면 남자 선수와 함께 뛰는 최초의 여자 선수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장훈 통산 1만 득점 다음 경기로 16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전주 KCC의 경기에서 전주 KCC 서장훈(오른쪽)이 슈트를 하고 있다. KBL 최초로 정규리그 통산 1만 득점을 남겼던 서장훈은 이날 13점에 그쳐 19일 창원 LG와 홈 경기로 대기록 달성을 미뤘다. 모비스가 90-84로 승리했다.



17일(월) ▲제63회 전국대학축구 선수권대회 결승전(14:00·KBS n 스포츠) ▲2008 전국야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

(14:10·KBS1) ▲08/09 여자프로농구(신세계:우리는행) (18:50·SBS 스포츠)

18일(화) ▲2008 세계올스타 자선축구(호나우드 팀:지단 팀) (03:00·KBS n 스포츠)

“올 시즌 만족...쇼트게임 보완하겠다”

최경주 귀국 인터뷰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사진)가 아시아프로골프투어 바클레이스 싱가포르오픈을 마치고 1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회로 사실상 2008 시즌을 마무리한 최경주는 “잘 끝난 한 해다. 주위에서 더 우승을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크신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매년 상순하고 있고 큰 편차가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결과에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최경주는 올 시즌 PGA 소니오픈, KPGA 신한동해오픈에서 우승했다.

시즌 중반 성적이 약간 주춤했던 것에 대해서는 “체중이 약간 감소하면서 결과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지방이 빠지고 근육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했다. 원래 바클레이스 싱가포르오픈을 마치고 17일 귀국 예정이었다가 성적이 좋지 않아 귀국 일정을 하루 앞당긴 최경주는 “상하이에서 열린 HSBC 챔피언스대회에서는 예상 밖으로 날씨가 추워 좋은 성적을 못 냈다. 또 싱가포르 대회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면서 리듬을 잃었다”라며 “(한국에) 보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잘 됐다”라고 웃어 보였다.

2009 시즌을 대비해서는 쇼트 게임에 대한 대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경주는 “큰 대회에서 이기기 위해, 또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쇼트 게임이 매우 중요하다. 쇼트 게임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음 시즌을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희경 시즌 5승 “내가 2인자”

KLPGA 세인트포 레이디스 우승

‘슈퍼모델’ 서희경(22·하이트·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 시즌 다섯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으며 2인자 경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희경은 16일 제주 세인트포골프장(파72·6천331야드)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유럽여자프로골프가 공동 주최한 세인트포 레이디스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몰아쳐 3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시즌 3승을 올려 상급랭킹 3위를 달리고 있는 김하늘(20·코오롱)과 치열한 2인자



경쟁’을 벌였던 서희경은 이번 우승으로 다승 2위와 시즌 상급 2위를 완전히 굳혔다.

54홀 경기 동안 51번홀까지 단독 선두를 지키며 시즌 2승을 바라봤던 안선주(21·하이마트)는 3언더파 69타를 쳤지만 서희경에 2타 모자란 준우승(12언더파 204타)에 그쳐 또 한번 뒷심 부족에 uğ쳤다.

호주 매켄지 KPGA선수권 우승

42년만에 외국인 챔피언 호남대 이민창 공동 4위

앤드류 매켄지(26·호주)가 한국프로골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NH농협 KPGA선수권대회에서 42년 만에 외국인 챔피언으로 이름을 올렸다.

매켄지는 16일 경기도 포천 베이커리크อล์ฟ프장(파72·7천225야드)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의 맹타를 뽑아 4라운드 합계 8언더파 280타로 박상현(26·알드래그골프), 석종욱(40·갤러웨이)과 공동 선두에 오른 뒤 연장전 끝에 우승컵을 안았다. 한국프로골프협회가 투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외국인 시드권을 받아

올해 국내 무대에 뛰어난 매켄지는 올해 51회째를 맞은 KPGA 선수권대회에서 1966년 우승자 무디 이후 42년만에 탄생한 외국인 챔피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월 삼성베네스오픈 제패에 이어 시즌 2승째를 쟁긴 매켄지는 배상문(22·갤러웨이),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과 함께 공동 다승왕에 오르는 경쟁사를 누렸다.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시즌 첫 우승을 노리던 강경남은 2오버파 74타를 치는 부진 끝에 1타가 모자라 연장전에 진출하지 못하고 최인식과 함께 공동 4위에 머물렀다.

한편 장흥출신 이민창(호남대 2년)은 선전을 펼쳤으나 마지막날 1오버파로 부진, 4라운드 합계 7언더파 281타로 이렇게 공동 4위에 머물렀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해령법률경매' (Haeryeong Law Auction)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당부동산' (Geomdang Real Estate) with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contact detai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월빙공인중개사' (Wolbing Real Estate Broker)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다우공인중개사' (Dau Real Estate Broker) with property listings and contact inf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심일부동산' (Daedong Simil Real Estate) highlighting property features and services.